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 《가시고기》까지, 책의 1백년 한눈에 본다

2003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다시 보고 싶은 베스트셀러 100년> 특별전을 갖는다. 이 전시는 우리나라가 근대적 출판시설을 갖춘 때부터 전자출판시대를 맞이한 현재까지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았던 베스트, 스테디셀러를 소개한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책, 출판문화에 한 획을 그으며 주목받았던 책을 통해 각 시대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다시 보고 싶은 베스트셀러 100년 전>에 소개되는 책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해 전시된다. 1800년대 말부터 1910년까지 1단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2단계, 1945년부터 1961년까지 3단계, 1961년부터 1972년까지 4단계, 1973년부터 1980년까지 5단계, 1981년부터 1990년까지 6단계, 1991년부터 2000년까지를 7단계로 나눴다.

우리나라가 근대 출판시설을 갖추었던 1800년대 말부터 1910년까지의 도서들을 소개하는 1단계 전시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유학여행기로 알려진 《서유견문 西遊見聞》을 비롯해서 최초의 신소설로 알려진 이인직의 《혈의 누》를 직접 볼 수 있다. 2단계 시기에서는 일제 암흑기에서도 민족의 목소리를 책을 통해 담아보려고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광수의 《무정》, 심훈의 《상록수》 그리고 한국인들의 애송시로 인정받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도 소개된다. 3단계에서는 출판 1세대가 등장하는 1945년부터 1961년까지의 대표 도서들이 소개된다. 대학교수 부인의 탈선을 그려 화제를 모았던 정비석의 《자유부인》, 한하운의 《보리피리》 등이 그것이다. 4·19와 5·16에 이어 10월 유신, 계엄령으로 이어진 사회혼란을 겪으며 책을 통해 현실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노력들이 보이는 시기도 있다.

1961년부터 1972년까지의 도서들을 대표하는 최인훈의 《광장》,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그리고 이운복의 《저하늘에도 슬픔이》 등이 당시 화제를 모은 대표적인 책으로 소개된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며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던 1970년대 이후부터는 한글세대 작가군이 등장한다. 최인훈의 《별들의 고향》, 황석영의 《객지》,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 등이 당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책들이다. 본격적인 단행본 시대가 열리면서 명상서적, 서정시집 손자병법과 같은 처세서가 인기몰이를 했던 1980년대에는 김홍신의 《인간시장》, 정비석의 《손자병법》 그리고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 서정운의 《홀로서기》 등이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출판계는 1990년대를 맞이하면서 다양화된다.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도서들을 모은 7단계에서는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 조창인의 《가시고기》, 위기철의 《반값다 논리아》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도서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시에 전시되는 도서는 총 350종, 작가 친필원고가 20여 점 전시되고 작고문인 초상 및 프로필 36점도 소개된다. 이번 <다시 보고 싶은 베스트셀러 100년 전>은 부모세대에게는 지나간 추억을 되찾을 기회를 주고, 젊은 세대에게는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출판관계자에게는 출판시장의 양적인 팽창에 걸맞게 출판물의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김청연 기자

